



HPAI 발생현황 및 방역, 홍보활동

HPAI 발생으로 양계업계 충격

양계산업에서 태풍의 핵인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또 다시 국내에서 상륙하며 양계산업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금까지 HPAI가 전라도 익산·거제지역과 충남 아산에 총 4차례 발생하면서 추후 AI 확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익산·김제 위험지역내 가금류 및 김제 경계지역 농장에서 총 1,121천마리(171농가)가 살처분되었다. 방역당국에서는 발생지역은 물론 집단 사육지역을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소비감소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소비홍보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21일에 충남 아산 종오리 농장에서 정밀검사결과 HPAI로 판명되면서 AI가 확산되는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HPAI 발생현황

지난 11월 22일 전북 익산의 육용종계농가에서 13,000수 중 6,103수가 폐사(11.19 부티)했다는 의사 AI 발생 신고가 접수되었고, 정밀검사결과 11월 25일에 「고병원성(H5N1)」(11.25)으로 판명되면서 2004년 3월 20일 국내에 AI가 최종 발생된지 2년8개월 만에 국내에 다시 발생되면서 충격을 주었다.

5일 뒤인 11월 27일에는 최초 발생농장으로부터 3km 정도 떨어진 위험지역내 육용종계 농가에서 추가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지만 위험지역 내에 발생되면서 초동방역에 성공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어서 지난 12월 10일에 1차 발생지역에서 남쪽으로 18km 떨어진 곳인 전북 김제시

메추리 농장에서 3차 HPAI가 발생되었으며 지난 21일 충남 아산 종오리 농장에서 4차 HPAI로 판명되자 AI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종오리 농장은 12월 11일 신고되어 바이러스 증식 시험결과 이상이 없었으나 추가 산란을 저하 등 이상징후가 관찰되어 18일 검사 시료를 다시 채취한 결과 HPAI로 판명되었다.

한편 의사 AI가 발생되었다는 보고 직후 평택(11.23)과 양평(11.24) 등에서도 신고가 잇따랐지만 저병원성으로 확인되었으며, 충남 서산(11.27)의 신고는 AI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2. 방역 진행사항

농림부는 타 시·도지사에 의사환축 발생을



통보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해당 농장에 이동 제한, 살처분, 소독 및 차단방역조치, 상황실 및 통제초소 운영, 예찰강화 등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

발생농장 반경 500m내 사육가금 236천수 등에 대해 살처분 조치를 했으며, 아울러 발생농장에서 종란을 공급받는 전국 익산소재 부화장 2개소에서 부화중인 종란 600여만개와 이동제한 기간 동안 위험지역(반경 3km)안에서 생산되는 식용계란을 모두 폐기처분하였다. 또한 발생농장 반경 10km안의 닭·오리 사육농장 221개소의 505만마리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이동제한 조치를 취한데 이어 2차 발생이후 농림부는 가축방역협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11월 30일 반경 3km까지 살처분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AI 방제 통제 초소는 15개에서 21개로 늘어났고 발생한 두 농가 반경 3km 안에 있는 40개 농장의 가금류 78만 4천여마리가 살처분 되었다.

또한 방역 당국은 이와 함께 두 번째 발병이 이루어진 최초 농장 반경 10km 범위, '경계지역' 안에서 발생했지만 경각심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AI경보 단계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하였다.

3차 발생지역인 김제 메추라기 농장은 최초 발생지역과 18km 떨어져 있어 3차 발생지역을 기준으로 방역경계를 새로이 추가로 재설정했으며 발생농장 메추리 29만마리 및 오염·위험지역내 가금류 75,655마리에 대한 살처분 조치를 완료했다.

4차 발생지역인 아산지역에서도 발생농장 3km이내의 가금류 23천여 마리에 대한살처분 및

부화장의 부화란 등을 12월 21일부터 폐기 조치하기 시작했다.

3. AI 바이러스 해외에서 유입, 인체감염과 무관

농림부 관계자는 “차량 출입, 부화장 공유 등 측면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농가와 관련이 있는 411개 농장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번 세번째 발병 농장은 역학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정확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비슷한 시기에 세 개 농장에 HPAI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메추리의 경우 잠복기가 다소 길다는 점을 감안해도, HPAI의 잠복기가 보통 2~3일인 것을 생각하면 세 번째 발병시점이 너무 늦다는 지적이다. 다만 드물게 20일 정도의 잠복 기간이 보고된 바도 있는 만큼 이 시나리오의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정부당국은 발병 지역 농장들에 드나드는 각종 운반 차량들이 공통적으로 23번 지방도로를 주로 이용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도로 주요 지점에 방역통제소를 설치, 소독 등의 방역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익산에서 분리된 H5N1형 바이러스 2건은 동일한 것으로, 사람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섞이지 않은 조류에서 유래된 바이러스로 판명되었다.

농림부는 지난 15일자로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H5N1) 2건에 대한 국



립수의과학검역원의 유전자 분석 결과 중국 서부 “칭하이”에서 분리된 유전자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05년 5월 중국 칭하이 호수의 야생조류에서 분리된 H5N1형 바이러스는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등지의 야생조류 및 일부가금류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같은 그룹이었으며, 인체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분리된 바이러스들과는 다른 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검역원 관계자에 의하면 익산에서 분리된 AI 바이러스는 사람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섞이지 않은 조류에서 유래된 바이러스이며, 감제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의 분석결과는 추후 발표

될 예정이다.

4. 본회의 시에 대한 대응 및 양계산물 홍보

11월 20일 의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보도에 따라 본회에서는 전직원이 휴일도 반납하고 상황근무 체제에 돌입하였다.

본회는 AI 진성이 확인되는 시점부터 AI 종식 선언까지 본회에 마련된 상황실에 대기하면서 질병상황 파악을 물론 정부와의 협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AI 확산에 적극 대처해 가고 있다.

또한 AI 비상대책본부를 더욱 강화해 대화협력팀, 소비대책팀, 수급조절팀 등을 편성해 AI



▲ 각 지역별로 소비촉진행사가 진행되었다.



발생현황 예찰은 물론 농가 홍보, 소비촉진, 수매비축 등 AI 발생이후 예상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오고 있다.

AI 비상대책본부는 회원들로 구성된 지부·지회를 채널로 신속한 신고체제를 구축하고 의심축이 발견될 경우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고 추가 확산을 조기에 막는다는 계획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우선 가장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는 양계산물의 소비감소를 최소화 하고자 언론매체로 인한 과잉보도를 예방, 양계산물의 안전성 홍보, 수매 대책 수립 등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지난 15일 최준구 회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가격폭락으로 인해 농가들의 아픔 심정을 호



▲ 시로 피해로 인한 양계농가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최준구 회장의 KBS와의 인터뷰 장면

소하며 정부의 수매를 조속히 요구하였다.

한편 11월 30일에는 이준동 충북도지회장은 전북TV방송 생방송 전북포커스21에 출연하여 “75℃이상에서 5분 동안 익혀먹으면 괜찮다는 말도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전하며 닭고기·계란은 안전하여 철저한 관

리 하에 시중에 유통되는 생체 자체도 100%안전함”을 강조했다.

각 지역에서도 소비홍보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AI 피해영향이 큰 만큼 시·군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협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보다 많은 소비행사가 열렸다. 본회에서는 소비홍보와 함께 안전한 양계산물 홍보 전단지 6만부를 제작하여 지부지회와 행사장 등에 배포하였다.

한편 산란계 임의자조금으로 거출된 자금을 통해 지난 12월부터 라디오 홍보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양계**



▲ 이준동 지회장은 생방송 전북포커스21에 출연해 닭고기 안전성을 강조하였다.